

서울·고려·연세대 최저학력 폐지...대입개선 약일까 독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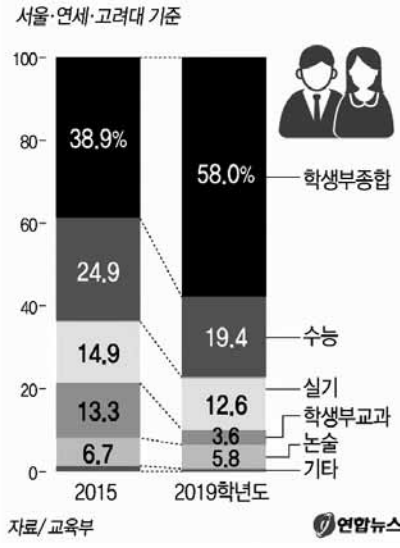
상위권 대학 2020년 입시 변화 정시 늘리고 학종 확대 움직임 “수능 약화 우려” 목소리도 최저학력 유지 청원 8만명 넘어

정부가 사실상 수능 성적으로 대학 입학 생을 뽑는 정시모집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을 늘리고 수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기로 하면서 다른 상위권 대학의 입시계획에도 변화가 생길지 눈길이 쏠린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학종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대학 대입 전형별 모집 비중



◇2020학년도 입시 변화예고=고민 깊어진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1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

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학년도 입시는 현재 고 2학생이 해당된다.

연세대 입학전형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1136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보다 125명 늘어 전체 모집인원의 33.1%를 차지하게 된다.

연세대가 이처럼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고 정시모집 인원을 늘리면서 다른 상위권 대학의 2020학년도 입시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인재를 확보하고자 경쟁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타 대학의 입시전형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눈길이 쏠리는 것은 서울대와 고려대 등 최근 학종전형 비율을 크게 늘린 대학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의 60% 이상을 학종전형으로 뽑는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017~2018학년도 사이에 학종 모집 비율이 약 20%에서 60%가량으로 급증했다.

고려대가 이처럼 한 해 사이 전형방식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상위권 대학의 입학전형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서강대·성균관대·동국대 등도 같은 기간 학종 모집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교육부, 학종 확대에 제동=교육부가 급격한 학종전형 확대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 또한 2020학년도 입시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각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폐지했는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도록 유도한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를 교육부가 수년간 유지해 온 정책 기조였고,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반영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에 배포한 세부 설명자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이를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수시모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교육부는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폐지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대학이 학종전형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총장들과 연락해 2020학년도 정시모집 확대 가능성을 문의한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임성호 총로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가 이런 권고를 더 강력하게 한다면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학부모 정시 더 확대해야=학생·학부모는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전남지

역 학부모들은 학종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등 대입전형의 간소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학종전형이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사교육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인재에게 유리하다는 선입견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학생·학부모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가 학종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1일 정오까지 약 8만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했다.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면 사실상 정시모집이 줄어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 불합격한 인원이 정시모집 선발인원으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최근 동신대학교 나라관 2층에 문을 연 '드림 팩토리'에서 학생들이 공부와 모임을 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토론식 학습 최적화...동신대 '드림팩토리'서 꿈 키운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이뤄가는 공간 '드림 팩토리'(Dream Factory)가 문을 열었다.

2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2018학년도 개강과 함께 대학 나라관 2층에 '드림팩토리'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옛 학생식당 자리에 들어선 '드림팩토리'는 휴게실(라운지·lounge)과 7개의

미팅룸으로 구성됐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자유롭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실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부와 모임을 할 수 있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공간으로 구성됐다.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미팅룸은 12인실(2개), 10인실(1개), 8인실(2개), 6인

실(2개)이 갖춰져 있으며 최소 하루 전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학생경력개발지원팀으로 제출, 승인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기본 2시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휴게실과 미팅룸에는 조별 모임이나 토론, 회의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판이 갖춰져 있어 조별 발표

를 앞둔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김진갑 동신대 학생경력개발지원팀장은 “드림팩토리는 토론과 회의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과 4차 산업혁명시대 리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자라고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아세안 이공계 대학생 연수 시행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원)가 2018년도 'ASEAN 국가 우수 이공계대학생 연수 기관'에 호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한·ASEAN 유학생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위해 유학생 연수를 담당할 연수기관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권역별로 모두 5개 대학을 선정했다.

5개 연수기관에서는 한·아세안 협력국가인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등 아세안 10개

국 이공계 대학생 2, 3, 4학년 120명을 위탁받아 연수를 시행한다.

호남·제주권에서 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선정된 조선대학교에는 정원 24명을 배정받아 여름방학 기간인 7월16일부터 8월 17일까지 5주간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강동원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세안국가 인재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특화된 전공교육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특화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 선도형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호남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 LINC+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혁신선도대학사업은 LINC+ 사업 수행대학 중 49개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서면평가(1차)와 대면평가(2차)를 거친 후 LINC+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사·확정했다.

LINC+ 사업은 대학의 비전, 여건 및

특성 등을 살펴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호남대는 4차 산업혁명 전문교과와 경우 자율주행전기차 분야의 기술 분류를 통해 자동차전자제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장·전동력제어, 전자제어·무선통신, 패턴인식·컴퓨터비전 등 5개의 교육과정을 구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계전공의 참여도 용이하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습성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속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